

2020창원조각비엔날레

시민 강좌 <조각의 모든 것>

홍경한 미술평론가 : 국내 조각공원과 조각
2020. 7. 25 (8회차)

국내 조각공원과 조각

해외 못지않게 우리나라에도 많은 수의 조각공원이 있다. 적어도 지자체마다 한두 개씩은 조성했을 것이다. 실제로 1982년 한국 최초의 야외 조각공원인 유달산 조각공원으로부터 송파구에 자리한 서울 올림픽공원까지, 다양한 규모와 성격의 공원이 전국 곳곳(강원도 양구군과 김포, 제주, 창원, 부산, 안양 등)에 터를 잡고 있다.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처럼 미술

관 부속 공원들도 꽤 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해외 조각공원들이 대체로 공익성을 중시한 기업과 개인 미술애호가, 자선가들에 의해 설립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천안의 아라리오 푸른 조각공원 등의

일부를 제외하면 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도해왔다는 점이다. 서울 올림픽공원처럼 아예 정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예술을 덧댄 공간도 있다. 이처럼 설치 배경과 주체가 다른 부분은 해외 조각공원과 한국 조각공원 간 명료한 차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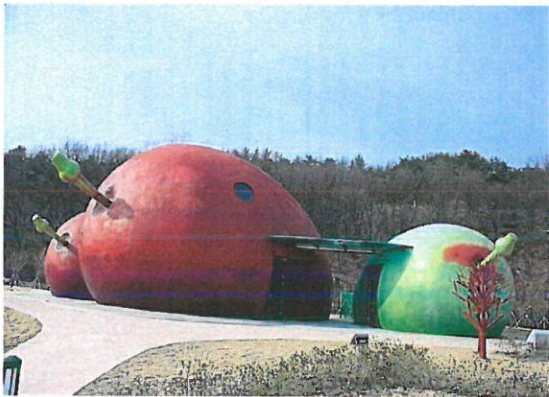
한국의 경우 성격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도 해외 주요 조각공원들과 구분되는 지점이다. 획일화와 평균화라는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그저 한곳에 작품을 모아놓은 수준이 태반(조각공원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만큼 여러 작품을 중구난방 늘어놓은 수준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이며, 세계적인 공원을 추구하면서도 방대한 작품 수 대비 의미 있는 작품은 드물다.(일부 조각공원의 경우 지나치게 대중 취향에 맞추다 보니 예술성이 놀라울 정도로 낮다.) 설사 세계 거장들의 작품일지라도 그 가치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 조각공원은 때로 '조각의 공동묘지'로 불린다.

국내 조각공원에서 미적 체험을 극대화하는 행사는 프로그램도 어렵다. 어느 지자체에서도 기획하지 않는다. 그러니 해외처럼 교육과 생태, 미술향유에 대한 기대는 갖기 어렵다. 대신 그 자리엔 예산낭비성 황당 치적사업이 들어서고 있다.

일례로 2016년부터 줄곧 논란이 되고 있는 군위군 ‘대추 테마공원’(지역 특산물인 대추를 홍보하기 위해 경북 군위군 의흥면 수서리 부지 약 2만 7천여 평(9,142제곱미터)에 1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테마공원)에는 지역 특산물인 대추를 형상화한 조각 작품이 서너 개 세워졌다. 높이 11미터인 대추 탑을 비롯해 과일대추로 유명한 왕대추 조형물도 얹혀 놨다. 하지만 공원이 조성된 장소는 도로 한복판인데다 인구 2,000여 명이 거주하는 외딴 시골이다. 물론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곳에 새로운 형식의 조형물(?)까지 만들었다. 바로 ‘대추 화장실’이다. 예산만 7억이 투입됐다. 그러나 이곳에 설치된 조형물들은 다소 키치적인데다 외부인을 끌어 모을 조경 및 휴게시설, 조망시설, 위락시설 등은 거의 없다.

사실상 우리나라 조각공원이라고 불리는 곳의 현주소는 군위군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막대한 시민혈세를 사용하지만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지역민조차 존재를 알지 못한다. 일례로 창원의 ‘돌섬’은 2012년부터 조성된 일종의 섬 조각공원으로,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산물이다. 창원시는 비엔날레가 끝날 때마다 예산투입을 이유로 실외설치작품의 절반 이상을 영구설치로 남겨 왔다.(다행히 올해

부턴 비엔날레의 고유 목적에 충실하게 전개되는 인상이다. 10년마다 개최되는 독일 윈스터조각프로젝트 또한 실외설치작의 10~20%만을 영구보존한다.)

돌섬으로 인해 적어도 창원시민들은 몇 발짝만 움직이면 국내외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문제는 홍보가 빈약하다는 점이다. 조각으로 가득한 돌섬은 물론이고 용지호수공원, 추산공원, 장복산공원 등지에 70여점이 넘는 작품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시민들은 잘 모른다.

그나마도 너무 많다. 돌섬만 해도 작은 섬에 지나치게 많은 조각을 들여놔 여유로운 감상이 어렵고, 상시 시민프로그램은 창원문화재단이 마련한 ‘도시예술산책’이라는 프로그램(2017년엔 가동했으나 지금도 운영 중인지는 모르겠다)을 제외하면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때문에 일부에선 공원을 만들기 위해 비엔날레를 개최하느냐는 반응도 나오곤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조각공원은 총체적 난맥을 보인다. 강원도 양구군이나 경기도 김포처럼 무더기로 조각을 모아 놓거나 마을 전체를 조각공원화 한다면 무관심으로 방치하다시피 한 채, 특성화 전략조차 없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이에 강연자는 우리나라 조각공원이 세계적인 위치에 서려면 무엇보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문화예술의 유산화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의 지원 방식이 폭넓게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술작품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이해, 대중민 홍보, 조각과 친해질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지금처럼 양만 많지, 질적 가치는 고려되지 않는 치적 혹은 선전용 '행정공원'이나, 프로그램과 행사의 산물을 어딘가 쌓아 놓는 '창고형 조각공원'으로는 '세계적'이라는 수사에 근접하기 어렵다. 2005년 이후 예산 약 200억 원을 들여 총 200여 점의 예술작품이 설치됐으나 그 사이 120여 점이 철거되고 고작 80여 점만이 남아 있는 안양의 사례처럼 사후 관리까지 부실하면 세계적이긴 고사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한다.



이러한 현실에서도 세계 현대미술계에서 알아주는 조각공원들이 있다. 천안 아라리오 푸른 조각공원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개인 컬렉터가 운영하는 곳으로, 미술애호가들이라면 꼭 방문해봐야 할 순례코스일 만큼 인기가 많다. 세계적인 작품들이 조경과 멋지게 어우러져 미술계에선 '현대미술의 숲'이라 부르기도 한다. 2015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찾는 발길이 더욱 늘었다. 미술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공원에 들어서면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는데,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 알고 나면 입을 다물지 못한다.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앞둔 1984년 조성된 올림픽조각공원도 주목해야 할 공원으로 꼽힌다. 43만여 평의 대지 위에 루이스 부르주아(프랑스)와 에르빈 부름(오스트리아)의 초기작품 등 세계 각국의 거장 작품 총 222점이 설치되어 있다. 야외작품은 196점으로, 서울올림픽 당시 문화예술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국제 야외조각 심포지엄과 야외조각 초대전을 통해 구축됐다. 때문에 작품의 주제가 올림픽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마지막으로 시선을 끄는 곳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앞마당에 조성된 조각공원이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이 만들어진 1986년부터 모아온 국내외 유명 작가의 소장품 수십여 점이 미술관 앞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도 쿠사마 야요이(일본)를 비롯해 베르나르 브네(프랑스), 조너던 브로프스키(미국) 등의 거장 작품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올림픽공원을 빼곤 이곳 역시 마땅한 해설프로그램이 없다. 그저 보고 마는 게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전부이다.
(참고로 올림픽공원은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 중이다.)

이에 이번 강연에선 아라리오 조각공원과 올림픽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앞마당에 자리 잡은 조각공원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주요 작품들에 대해 대신 설명하는 시간을 공유한다. 우리 조각공원들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